

# GWANGJU

## FOOTBALL CLUB

December 2014 / NO. 07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 NEWS

GWANGJU PHOTO! 올 시즌 승리의 순간들!  
간절했던 승격의 꿈, 이제 눈앞에 있다!  
경남과의 승강 PO 1차전을 잡아라!  
'부상 투혼' 파비오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  
생사를 갈라놓을 승강 플레이오프!

### EVENT



이번 홈 경기에서는 '삼성 하우젠 세탁기'가 경품으로 제공되고,  
장내 치킨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14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광주 FC vs 경남 FC  
12월 3일(수) 19:00



### 2014시즌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남 FC vs 광주 FC  
12월 6일(토) 14:00 창원 축구센터





# GWANGJU PHOTO! 올 시즌 승리의 순간들!



03.30 부천전에서 2-0을 기록하며 2014시즌 첫 승리



06.30 7경기 만에 승리를 알린 대구전 2-1 승리



07.05 시즌 첫 연승과 첫 원정 승리였던 고양전 4-2 승리



08.10 반격의 서막이었던 후반기 첫 경기 안양전 1-0 승리



09.17 1위 대전에 홈 첫 패배를 안겼던 극적인 1-0 승리



09.21 후반에만 4골을 폭발하며 역전극 이뤘던 강원전 4-2 승리



11.22 김호남의 결승골로 강원전 준플레이오프 1-0 승리



11.29 올해 안산전 첫 승을 플레이오프에서 기록한 3-0 승리



# 간절했던 승격의 꿈, 이제 눈앞에 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승격의 꿈이 현실로 되기 직전이다. 광주 FC가 K리그 챌린지 플레이오프 시즌 최종 승자가 되며 이제 클래식 11위 팀인 경남 FC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 여부를 결정한다. 길고 길었던 올 한 해 동안 승격이란 목표를 보고 달려왔던 광주는 이제 단 두 경기를 통해 간절함의 목표를 승격이란 결과로 얻어내려 한다.

사실, 광주에 승격이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2012년 강등을 경험한 후 지난해부터 K리그 챌린지가 출범하며 광주는 클래식 복귀라는 목표로 당당히 시즌을 치렀다. 하지만 단 1위 팀에만 주어지는 승격의 자리는 광주의 것이 아니었다. 상주 상무와 경찰 축구단(現안산)이 리그를 휩쓸며 우승 후보에 거론조차 되지 못했고 그나마 군경팀에 이어 리그 3위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광주는 본격적으로 클래식 무대로 복귀하기 위해 대대적인 선수단 변화를 줬다. 올 시즌을 앞두고 클래식 경력이 풍부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단숨에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리그가 시작되기 전, 안산과 함께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너무나 큰 기대를 걸었던 탓이었을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광주의 경기는 기대 이하였다. 선수 변동의 폭이 커 조직력이 허점을 드러냈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결출한 해결사가 없어 파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내심 챌린지 우승까지 바라봤던 광주 팬들의 실망감은 커졌고 순위표 상단에 광주의 이름을 찾이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광주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다. 챌린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림과 동시에 클래식 직행 티켓을 손에 거머쥐는 것이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을 맞춰간 광주는 후반기에 대반격을 시도했다. 일주일 동안의 휴식기를 가진 후인 8월부터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를 기록하며 순위 상승을 이뤘고 연패를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으면서 승점을 차곡 차곡 쌓았다. 정규리그 막판에 충주 험멜과 안산에 발목을 잡히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가까스로 4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냈다. 비록, 기존 목표였던 우승에는 실패했으나 실질적인 목표인 클래식 승격의 희망을 이어갔다.

간신히 4위로 준플레이오프로 진출한 광주는 또 다른 어려움에 닥쳤다. 챌린지 플레이오프에서 무승부가 될 경우 정규리그 최종 순위가 높은 팀이 승자가 된다는 규칙 때문이었다. 분명 광주에 불리한 조건이자 어려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광주는 하나로 뭉쳤다. 애초 목표였던 승격을 외치며 오직 승리만을 바라봤다. 아직 광주엔 강등의 아픔을 경험한 창단 멤버들이 있다. 그 누구보다 승격에 대한 열망이 컸기에 이 기회를 살리

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절반 이상 이뤄냈다. 강원과 안산을 차례로 꺾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제 남은 경기는 오늘 경기(1차전)를 포함해 토요일(2차전) 경기를 마지막으로 광주의 승격 여부가 갈린다. 2년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클래식으로의 승격을 꺼내야 할 시기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만큼 마지막에 활짝 웃어 꿈을 현실로 만들려 한다.



# 승격 위한 첫 번째 관문, 경남과의 승강 PO 1차전을 잡아라!



광주 FC가 승격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거친다. 바로 경남 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다.

광주는 오는 3일(수)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014' 1차전 경남과의 홈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이번 경남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승자가 되면 클래식 승격을 이룰 수 있다. 2차전이 6일(토) 오후 2시 경남의 홈 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리기에 홈에서 열리는 이번 1차전 승리가 필수적이다.

광주는 여태까지 경남과 총 4차례의 승부를 가렸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4경기를 치러 모두 패배했다. 1득점을 기록하는 동안 6실점이나 허용하며 발목을 잡혀 왔다. 하지만 이 기억은 무려 2년 전 일이다. 현재의 광주는 더 강해졌고 돌풍을 일으키던 경남의 과거는 지금 없다. 이에 챌린지 플레이오프에서 승승장구하던 상승세를 이어가 경남을 꺾고 승격에 한 걸음 다가서겠다는 각오다.

## 토너먼트에 익숙하고 강한 광주

광주는 챌린지 플레이오프에서 강원 FC(준PO)와 안산 경찰청(PO)을 차례로 꺾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공격과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승리를 기록할 만한 파괴력 넘치는 공격력을 선보였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이 4경기 동안 상대에 허용한 실점은 전혀 없다. 확실한 커버플레이와 빈틈없는 수비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했다.

대 공격을 무력화했다.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 건 두 차례의 경기로 승부를 결정하는 토너먼트라는 점이다. 이미 광주는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통해 단판 승부를 경험해봤다. 무승부를 기록하더라도 탈락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해 모두 승리를 따냈다. 또, 올 시즌 FA컵에서도 16강까지 진출하며 토너먼트의 강자로 떠올랐다.

반면, 경남은 스플릿 라운드의 치열함 속에서 생존하지 못했다. 시즌 최종전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잔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주 상무에 1-3으로 대패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광주의 상황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광주가 충분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경남은 클래식 12개 구단 중 최저 득점을 기록했다. 38경기 동안 득점이 고작 30점에 그쳤다. 챌린지 최소실점을 자랑하고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을 펼치고 있는 광주 수비진이 집중력만 유지한다면 홈에서 무실점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광주는 수비도 강하지만 공격도 이에 못지 않게 강하다. 지난 안산과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후반전에만 3골을 터뜨리는 위력을 발휘하며 3-0 완승을 기록했다. 브라질 외국인 듀오인 파비오와 디에고가 3골을 합작했고 측면에서 김호남과 이종민이 조력자를 자청했다.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광주이기에 이번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기선제압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 역대 통산 전적

# '승리만이 살길이다!'



## 브랑코 감독대행

1950.09.11

## 감독 성적

5승 6무 7패

## 관전 포인트

경남, 최근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  
경남, 최근 5경기 연속 실점(7실점)  
경남, 최근 원정 8경기 연속 무승(4무 4패)

## 경남의 최다 득점자, 스토야노비치!



## 주요 선수

경남 FW 스토야노비치

1984.12.25

30경기 7득점



예상  
포메이션

### 경남 4-3-3



## ‘부상 투혼’ 파비오가 광주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



광주 FC는 지난 11월 29일(토)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안산 경찰청과 챌린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렀다.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다. 후반전에 광주의 총공세가 예상된 가운데 후반 20분 광주의 남기일 감독대행은 숨겨둔 카드를 꺼내며 승부수를 걸었다. 이 승부수는 바로 브라질 출신 공격수 파비오의 투입이었다.

파비오는 투입되자마자 상대 수비진을 흔든 움직임으로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그리고 후반 25분 이종민의 크로스를 문전 쇄도하며 선제골을 만들었다. 팽팽하던 0-0의 균형을 단숨에 깨뜨린 귀중한 파비오의 득점이었다. 한 번 터진 광주의 공격은 무서웠다. 1분 후인 후반 26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김호남의 크로스를 받은 파비오가 또다시 안산의 골망을 흔들며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2분 만에 2골을 기록한 파비오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후반 31분 디에고에게 완벽한 득점 상황을 연결해주는 스루 패스를 날리며 도움을 추가했다.

광주는 2골 1도움을 기록한 파비오의 맹활약으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파비오는 이날 경기 MOM(Man Of the Match)에도 선정되며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다. 절정의 골 감각을 살린 파비오지만, 사실 그는 제대로 된 몸 상태가 아니었다. 지난 11월 16일(일) 고양 Hi FC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교체 투입되자마자 부상으로 실려나갔고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강원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독기를 품은 파비오의 출전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강원과의 준PO를 앞둔 파비오는 이번 경기는 결장하지만, 다음 안산전에서 무조건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광주는 강원을 잡고 안산과 격돌하게 됐고 파비오는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출전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안산전 출전명단에 그의 이름이 교체 명단에 올려져 있었다. 파비오는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팀에 보탬이 되려 했고 남기일 감독대행은 약 20분 정도 그를 투입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부상 투혼’을 벌이던 파비오가 투입되자 광주의 공격은 확실히 달라졌다. 스피드가 더 빨라졌고 부상 중이던 파비오에게 다른 선수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시즌 초 엇갈렸던 호흡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파비오였는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동료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광주를 강하게 만들었다. 후반기 영입된 최전방 공격수 디에고도 파비오와 찰떡 호흡을 과시했고 김호남, 조용태, 안성남 등 측면 공격수들과 이종민, 정호정, 이완 등 측면 수비수와의 원활한 흐름을 이었다.

파비오는 올 시즌 26경기에서 10골 2도움을 올리며 팀 내 최다 득점에 올라 있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국내 무대 적응을 마친 만큼 광주를 승격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도 대단하다. 올 시즌 초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파비오는 광주를 무조건 승격시키겠다는 비장을 각오를 밝혔었다. 이제 그 각오를 이루기까지 단 두 경기가 남았다. 부상으로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광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남전에서도 파비오는 광주를 위해 그리고 승격을 위해 다시 그라운드에 나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 광주와 경남의 생사를 갈라놓을 승강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란 국내 프로축구 1부리그 격인 K리그 클래식 팀과 2부리그 격인 K리그 챌린지 팀 간 잔류 혹은 승격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다.

K리그는 지난 2013년 격인 K리그 챌린지의 출범으로 1부, 2부리그의 구성을 갖춰 더 흥미진진한 리그 전개를 구성했다. 정규 라운드를 거쳐 클래식 하위권 팀들은 2부리그로 강등되고 챌린지 상위 팀들은 클래식으로 승격의 기회를 잡게 된다.

지난해 챌린지 우승을 차지한 상주 상무가 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강원 FC를 꺾고 K리그 첫 승격 팀의 영예를 안았다. 올 시즌엔 챌린지 구단들이 승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챌린지 우승팀에는 클래식 직행 티켓이 주어지고, 최종 순위 2위부터 4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단 한 팀을 가렸다. 반대로, 클래식은 최하위인 12위가 챌린지로 바로 강등되고 11위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올해, 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광주가 치르게 됐다. 클래식 11위를 기록한 경남과 맞붙을 예정인 광주는 3년 만에 클래식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승강 플레이오프는 기본적으로 양 팀의 홈 구장에서 한 경기씩 총 2경기를 치른다. 승자의 우선 원칙은 승리 수가 많은 팀이고 그 이후로 골득실, 원정 다득점, 연장전, 승부차기로 진행된다.

두 차례 맞대결로 승자가 가려지는 대결이기에 무엇보다도 첫 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승강 플레이오프다. 다행히, 광주는 1차전을 홈에서 치른다. 홈에서 기선제압을 한 뒤, 2차전 원정 경기에서는 좀 더 여유 있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야 한다. 지난해 상주와 강원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1차전을 4-1로 승리한 상주가 승격에 성공했다. 당시 상주는 1차전 홈 경기에서 완승을 기록하며 여유를 찾았고 2차전 원정 경기에서 0-1로 패배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최종 승자가 됐다.

1차전 결과에 따라 2차전의 전술, 경기 분위기 등 여러 조건이 바뀌거나 절박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챌린지 플레이오프와는 다르게 원정 다득점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상대에 실점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1차전 광주의 홈에서 광주가 0-0 무승부를 기록하고, 2차전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결과면 광주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기에 최종 승자가 된다. 이처럼 한 골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이 승강 플레이오프의 묘미다.

여러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승격에 지름길은 역시 승리뿐이다. 광주는 강원과 안산을 꺾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라왔다. 무조건 승리만 바라보고 절박함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승격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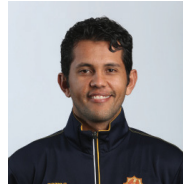
## 2014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대행



김영철 수석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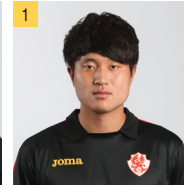
카를로스 피지컬코치



알베스 GK 코치



주치의 이준영



GK 제중현



GK 백민철



GK 류원우



DF 정준연



DF 전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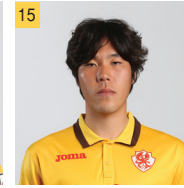
DF 최성환



DF 이완



DF 마철준



DF 김영빈



DF 이종민



DF 박진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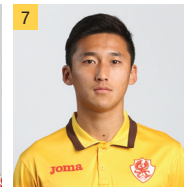
DF 오도현



DF 정호정



MF 여름



MF 김민수



MF 김유성



MF 김우철



MF 권수현



MF 송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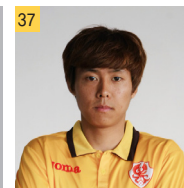
MF 홍태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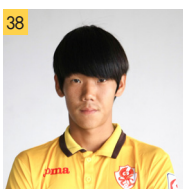
MF 조용태



MF 안성남



MF 박현



MF 윤상호



MF 이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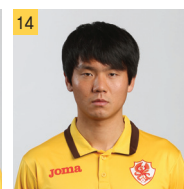
FW 임선영



FW 파비오



FW 김호남



FW 안중훈



FW 디에고



2014시즌 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 광주FC SNS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http://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발행일 2014년 12월 03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회원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c](http://www.thesports.cc))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